제19대 국회 제3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헌정대상 수상자 소감문 모음

■ 국회의원 강기윤(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한민국 헌정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정치, 특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실시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국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로 조사대상 13개 기관·단체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 하기는커녕, 여야 각자의 이해만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이 같은 불신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다른 이해관계 전혀 없이,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 때의 그 초심으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헌정대상을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수상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느덧 19대 국회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오늘 헌정대상 수상을 통해 임기 마지막까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

“성실한 의정활동, 늘 初心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개근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학창시절만 해도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성실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던 상이었습니다. 반대로 개근상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지 않았다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했다고,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한 편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쑥스럽기도 합니다.

법안 발의, 본회의 투표, 상임위 법안심사와 예·결산 심사, 그리고 국정감사 활동 등, 13개 항목을 평가하여 제가 뽑혔다는 점에서, 저를 선택해주신 광주시민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4만 명의 피해자를 낸 동양사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최대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두 사건 모두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되었고, 저는 피해자들의 편에서 진실을 밝히고, 보상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는 당의 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부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최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와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빠짐없이 상임위와 본회의에 출석한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본 예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상임위와 본회의에 개근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신뢰 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회의원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강석호입니다.

2013년에 이어 두 차례 국회의원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상의 기쁨도 있지만 앞으로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전반기 여당 간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중소기업 상생, 방만 경영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현장답사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부처와 산하기관들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토분야에서는 덤핑수주, 부실시공, 건설업체 부도 등의 문제를 놓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와 종합심사제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고, 교통분야는 KTX 분해정비주기 도래 부품, 조속한 정비 대책 마련과, 인천공항공사의 중소기업제품 의무사용 면탈 꼼수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실물경제가 침체되어 국민들의 어려움이 큰 데 불황이 오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고단함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 원

활한 국회운영을 이루어낼 것이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민생우선의 생활정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강석훈(새누리당, 서울 서초을)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을) 출신 국회의원 강석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4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사법기관도 감시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입법·사법분야에 대해 다양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애써주신 노력들이 쌓여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와 기관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발전해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항상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있었기에 정쟁보다 정책이 보다 중요한 국회로의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3년 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에 처음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로서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살려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을) 지역과 여의도 국회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왕복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무대에 전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조용히 학자로서의 삶만 살아오다 갑자기 바뀐 환경과 역할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매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노력들이 '제19대 국회의원 헌정대상'이라는 뜻깊은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전해주시는 현장의 말씀들과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정책들을 바탕으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오다보니 여러 시민단체들과 언론 등에서도 제 의정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습니다. 덕분에 오늘처럼 좋은 결과도 함께 따라온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도록 하고,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노력에 따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3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이런 생각을 잊지 않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통령의 주요 경제공약들을 실현시켰고, 국가경제정책과 함께 연말정산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국민들께 희

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시)

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 말보다 실천이 낫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옳은 말입니다만, 특히 정치인으로서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차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지금까지의 제 행보를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행동이 아닌 말로만 정치를 하진 않았는지,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에 새겼던 다짐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즐거운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란 세상을 바꾸는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이 문득 생각납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정치를 마주하면 고개를 저어버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우려를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듣지 못한 현장의 숨은 목소리를 보다 더 귀담아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과 노력을 입법·사법분야의 영역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높이 평가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헌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원동력 삼아 제가 꿈꾸는 '즐거운 정치'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양천갑 지역위원장)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피와 땀을 먹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60여년의 역사동안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체제를 거쳐 성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흘린 피와 땀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고, 뜻을 대변하기보다는 그들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돼버렸다는 것이 오늘의 인식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품고 19대 국회의원직을 시작했습니다. 시대과제인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부정책에서 소외된 국민에

게 집중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가져오고, 다시 그 목소리로 정부를 설득한다면, 국회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가 10여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시는 헌정대상의 의미는 매우 큼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남은 경주를 다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 결승점인 국민의 평가 앞에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 출신 김민기의원입니다.

우선 24년 동안 사법기관은 물론, 국회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감시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선정하는 '제19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들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데, 뜻밖에 '국회의원 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각종 재난과 재해,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는데 중심에 서 있는 위원회로, 충실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계속 활동하게 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도적 문제해결과 민생관련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회의원 헌정대상에 선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저를 선택해 주신 용인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 제대로 하겠습니다. 한 눈 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회의원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乙)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乙 국회의원 김우남입니다.

우선 부족한 제가 '법률소비자연맹'이 뽑은 '제19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헌정대상은 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여 달라는 유권자들의 격려이자 채찍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날이 갈수록 새롭게 발전해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민생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이 전하는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 소임을 다시 한 번 새기겠습니다.

특히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에 신음하는 농어민들의 한숨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이 분들의 고통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국회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끌어내는 더 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과분한 사랑을 주시는 유권자 여러분께 돌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종태(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상주시 국회의원 김종태 입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헌정대상 수상위원으로 뽑아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9대 국회 3차년도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평가해주신 모니터 요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헌정대상'은 정부기관이나 언론단체가 아닌 의정감시 전문시민단체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아마도 국회의원이 받는 상 중에서 으뜸 중에 으뜸일 것입니다. 특히 입법 활동을 감시하는 온·오프라인 2,700여명의 모니터 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께서 제19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을 종합분석·평가하여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상이기에 저에게 있어 그 어떤 수상보다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19대 국회 3년차를 맞아 경북 유일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한 우리 농어업을 지키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과 쌀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을 보호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지난 1년간 수입쌀 혼합판매 금지, 직불금 인상, 초과생산량 시장격리 등 제도적·법적 장치마련을 통한 쌀농가 보호에 앞장섰으며, 꾀감과 포도

가격하락을 막고자 안정적 소비처 확보와 수출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FTA 축산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축산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여 진일보한 지원책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도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저를 성원해주신 국민의 뜻에 작게나마 보답한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자리는 제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상주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늘 저를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상주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상의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19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상의 기쁨도 잠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메르스 사태의 장기화는 국민건강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메르스로 고통 받는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반추해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늦게 메르스 사태 수습과 신종감염질병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및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제2·제3의 메르스 예방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9대 국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다 많은 국민여러분들을 국회와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슈들을 다루는 상임위 중 하나입니다. 담배값 인상, 어린이집아동 폭행, 메르스 사태 관련 법안들을 심사·처리하고 정부에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1년의 임기동안은 보건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법률 소비자연맹의 금번 평가를 국민 여러분이 주시는 회초리라 생각하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날카롭고 냉철한 눈으로 국회의원을 활동을 감시·평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대, 18대에 이어 19대까지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이 최고되는 정치' 라는 기본원칙을 항상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민의 편에 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태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 출신 김태원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제19대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역구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무대에 전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바쁘고 때로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런 노력들이 '19대 국회 헌정대상'이라는 뜻 깊은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몸을 더욱 낮추고 결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성실하게 서민들을 비롯한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민병주(새누리당, 비례대표)

19대 국회에 입성하여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4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국회헌정대상』은 지난 17년간 꾸준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정밀조사와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상을 수상하는 것이 매우 뿌듯하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늘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 구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의 감시자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모니터링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해 항상 애 써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다시 한 번, 『국회헌정대상』수상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하반기 국회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 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민홍철(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갑)

안녕하십니까. 경남 김해갑 출신 국회의원 민홍철입니다.

19대 국회 3차년도의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과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더불어 지난 3년의 임기동안 동안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김해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및 군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드러난 부조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공공개발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일부 땅주인들이 임차농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을 '도장값'명목으로 떼가는 횡포를 지적하고 임차농들에게 제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8사단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됨에 따라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 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뒤돌아서 머무르지 않고 발전하며, 앞으로도 현실정치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법률안, 상임위, 본회의 등 여러 국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의 활발한 활동과 역량 강화에 노력하시는 법률소비자연맹과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구갑)

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구갑 국회의원 박남춘입니다.

「메밀꽃이 인다는 그 말」이라는 조용미 시인의 시구가 떠오릅니다. '일어나고 일어나 스러지고 또 스러져 다시 일어나는 그 꽃'처럼 어느 날은 잘 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차던 날도, 또 어느 날인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던 3년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좋은 성적으로 헌정대상에 선정되고 보니, 국민 앞에 부끄럽지는 않게 활동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봄 세월호 참사부터 올해 메르스까지 연이어 벌어진 사태에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민생이고, 경제 활성화 정책이며, 정치의 최종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기에 앞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희생자 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지겠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자연의 부지런함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의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입법·정책·예산 심의로, 지역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서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및 의정부, 강화도 사고의 후속법안인 안전강화 3대 법안과 중첩 규제와 접경지역으로 희생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서민들의 발인 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에 버스정보안내기(BIS) 설치 사업을 이끌어 내고,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예산 낭비를 지적해 고쳐낸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정책·예산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헌정대상에 걸맞게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국회 안팎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헌정대상을 회초리 삼아 처음의 마음과 자세 그대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천안을)

안녕하십니까!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헌정대상을 3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제19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과 국회 안팎에서 다방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RPC 도정시설에서는 농사용 전기 보다 비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벼 껍질을 벗겨내는 공정은 농산물 생산이 아닌 제조라며 도정시설에서 농사용 전기 적용을 제외하여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6일 쌀의 구매와 판매를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6월 2일 'RPC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6월 17일에는 전국 쌀 농민 29만 7,000여명이 RPC 도정시설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주민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전국 300만 농민의 10%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쌀 산업의 필수 인프라로서 농민 생산자단체 RPC의 위치가 인정돼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 지역 주민이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성환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을 3단계에 걸쳐 91만㎡(28만평)를 해제 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3탄약창 영외 군사보호구역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사보호시설과 관련 50여 년만의 획기적 개선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으로 지적되는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실패가 단순히 공기업들의 경영실패가 아닌 권력형 비리였음을 제기해 국정조사 진행을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세종·대전·충남·충북도에 3,380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은 시민들께 더욱 봉사하라는 격려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마부정제(馬不停蹄, 성과에 멈추지 않고 더욱 노력한다)의 자세로 민심을 얻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의 시대에 '희망'을 논하기는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국민들에게 믿을 곳, 기댈 곳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저부터 정도정행(正道正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박흥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구)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진심입니다.

진심이 변치 않기 위해서는 초심이 바래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선의원으로 등원하여 국회의원 선서를 했던 순간을 했던 순간을 떠올려봅니다.

저와 선배, 동료 의원 모두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헌정대상 평가 1등의 영예를 안으면서 다시금 이 선서를 되새깁니다.

기쁘고 영광된 순간에 저는 감사의 인사에 앞서 진솔한 고백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함께 했던 선서에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와 역할이 모두 담겨있지만 과연 얼마나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선배, 동료의원에게 대한 책망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던지는 자문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근심과 민생고를 해결해야 할 국회가 도리어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면서 지탄을 받고 있는 처지를 돌아보며, 오늘 주신 이 상을 더욱 자중자애 하라는 의미의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사로움은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멸사봉공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와 국회가 이러한 초심을 견지해간다면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통한 실질적 민생문제 해결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언젠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과분한 상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심과 실력을 겸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국회의원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광명갑)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갑 백재현 의원입니다.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수상은 2013년, 2014년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으로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저를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광명시민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국회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법률안 투표율,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본회의 출석률 등 13개 항목 평가기준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평가하여 주어지는 상으로, 의정활동의 충실함을 더하게 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재선의원으로서 더 나아진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더욱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2014년에는 상임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옮겨 MB 정부 5년간 무리하게 진행됐던 부실 해외 투자 등의 문제점, 부패와 안전 불감증 등 현 정부 실정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에는 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국민들의 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보탤었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이러한 의정활동 노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국회 헌정대상 수상은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의정활동을 함께 있어서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제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최우선으로 힘쓰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소중한 격려와 신뢰를 전달하기 위해 수고하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심재권(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동구을)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했을 뿐인데 수상 소감을 쓰려고 하니 쑥스럽기만 합니다.

수상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회의원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

안녕하십니까?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국회의원 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느새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초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대한민국을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미진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자문해보곤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정치 갈등 등 온갖 갈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기업인과 노동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의 고리를 끊고 서로 화합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의원에 재선으로 당선된 이후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형법 개정안」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사 직원과 정규직 직원이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주신 것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되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흥덕구 갑)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흥덕구 갑 오제세 의원입니다.

19대 국회 3년차를 마치며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국회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가지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증가, 최근 발생한 메르스 등으로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고, 국민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 3자가 모여 초당적인 '국가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정책기조 전환,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노인빈곤 문제해결, 부채의존 부동산 부양 정책 중단, 세정개혁을 통한 복지재정 확보 등 '4대 국정 혁신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약자, 서민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서민층은 '7포 세대'라 불리는 300만 청년, 300만 노인빈곤층, 800만 비정규직, 400만 영세자영업자, 250만 장애인 등 국민의 절반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치가 부유층과 재벌·대기업들과 같은 기득권층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기득권층의 편이 아닌 서민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국가의 위기, 서민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도 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광양, 구례)

안녕하십니까, 광양, 구례 지역구 국회의원 우윤근 입니다.

법률 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 19대 3차년도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시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은 전통을 가진 국내에서 권위 있는 시민 단체 중 하나입니다. 특

히, 법률 소비자 연맹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감시, 법정모니터링과 같은 사법기관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법정의의 구현에 힘써왔으며, 학생대상으로 한 법 지식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등 우리 국민이 법에 한 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소비자 연맹이 주관하는 국회모니터링은 해가 지나갈수록 평가방법의 계량화, 다양화를 통해 그 어느 단체가 주관하는 평가 시스템보다 뛰어난 객관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자리는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의 격려와 신뢰를 전달 받을 수 있고, 국회를 통해 공정한 법치민주국가, 경제사회문화의 발전, 사업부 행정부 등 5부를 제대로 발전시키자는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자리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시상하는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더욱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금과 같은 마음자세로 더욱 더 정진해 나아가라는 의미로 가슴깊이 뜻을 새기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좀 더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이번 헌정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항상 소통하며 화합하는 자세를 잊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국회의원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 갑)

안녕하십니까?

국회여성가족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헌정대상 국회의원으로,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3년 연속으로 NGO단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2년 연속 헌정대상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택배기사들이 일하는 우체국 현장,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돌아봤고, 국민들과의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정책의 시작도 현장이며, 대안도 현장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돌보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눈물,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의 목소리 등 우리 사회 윗(乙)인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철저하게 정부, 권력기관을 견제하겠다는 원칙입니다.

국정감사, 상임위, 특별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다짐입니다.

J.F. 케네디는 “국가는 시민의 하인이자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하인이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국민이 주신 상을 수상한다고 생각하니 해야 할 책무가 더 늘어난 듯합니다. 더 마음이 바빠집니다. 오늘 법률소비자에서 주시는 상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여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인이 되도록 늘 귀와 마음을 열어두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구을)

2012년 개원한 19대 국회의 임기가 어느덧 3년을 지났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설렘과 기대, 큰 성과를 내보겠다는 욕심이 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오로지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나름 노력을 해온 3년 이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문방위, 미방위, 교문위를 거치며 저는 늘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현장’, ‘소통’, ‘대안’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가 정쟁의 전유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법이 통과되지 못 하거나 여야의 의견 대립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국회가 파행에 이를 때도 있었습니다. 저 자신 또한 민생을 위한 입법에 있어서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삶과는 괴리된 정쟁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늘 반성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속한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가 조금 더 민생과 밀접한 내실 있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미흡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분한 격려의 상을 주신 것을, 앞으로 더욱 훌륭한 성과를 내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초선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앞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민생’, ‘현장’, ‘소통’, ‘대안’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을 위해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힘 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회의원 윤명희(새누리당,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윤명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3년 연속 좋은 평가를 해주신 '법률 소비자연맹 총본부'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단체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이끄는 주관단체로서 평소 우리 국회에 대한 꾸준한 분석과 격려를 통해 국회의원의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활동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농업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지난 3년간 농업인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비판보다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했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마련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습니다. 헌정대상을 주신 의미를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농민의 노력과 수고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윤재옥(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평가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법률 소비자 연맹의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꾸준한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의 부단한 노력들은 국회의원들에게 행동 하나 하나와 입법에 있어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부단한 노력을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를 드리며, 국회의원 헌정대상이라는 영광스런 상을 수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더 바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안녕하십니까! 서울 노원갑 출신 이노근 국회의원입니다. 제19대 국회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

으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히 저에게 이번 국회 헌정대상은 "3년 연속"이라는 수식이 붙게 되어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독려로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기본책무는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활동을 통해 나라 발전과 국민 행복 실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11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1,073건의 법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라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법안 발의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9대 국회 제3차 년도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교통, 주택, SOC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관련 법안 개정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전반에 안전이 화두에 오르며, 11월부터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존재하는 안전시스템 문제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 점검을 하는 등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 여러분이 안전한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월세난 해소,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아이디어 제시와 관련 법안 발의에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국회 헌정대상 수상은 나라를 위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끝으로 수상의 영예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국회의원으로 나라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이명수(새누리당, 충청남도 아산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먼저, 오늘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이라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9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서 선정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대 국회가 시작한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그 동안 하루하루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도 우리 충청도민과 아산시민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상은 곁에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주신 우리 충청 도민과 아산시민 덕분입니다.

니다. 앞으로도 아산을 대표하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려와 신뢰를 정확히 전달하는 의정활동 종합평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국회의원 이상일(새누리당,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이상일입니다.

법률소비자 연맹으로부터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큰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는 역대 최다인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월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 하자는 합의를 했지만 여러 국회 안팎의 사건들로 분리 국감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일정이 뒤늦게 확정됐고, '부실 국감'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활동을 하려고 했고,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가서 화재 대피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더니 대피로 일부가 막혀 있는 등의 문제 때문에 관객들이 골든타임 3분 안에 모두 대피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국감장에서 시연해 보였습니다. 이후 영화관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IPTV사의 '꿈수상영'도 지적했습니다. 배급사가 작은 영화관에 20만 원정도만 주면 관객이 적거나 심지어 없어도 영화진흥위원회에 극장동시상영 영화로 등록됩니다. 이럴 경우 IPTV 서비스 이용자는 일반 서비스 이용자(2000원)보다 4~5배 비싼 서비스 가격(10000원)에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후 IPTV 업계 등은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관광호텔의 등급심사 과정의 부실심사와 금품요구 등의 부패, 그리고 문화재청의 사찰 유물전시관의 문화재 관리 부실 문제도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지적했으며 정부는 시정조치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고교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안에 실린 부적절한 내용 지적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즉각 수용, 교과서를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

니다.

정부기관의 동해 영문표기 'East Sea'를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동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East Sea of Korea' 표기를 제안, 정부 관계자로부터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감을 시작하면서는 무분별한 증인 채택 제도를 개선하고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인에 대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의원들이 무엇을 물을 것인지 서면 답변서를 받은 후 국회 출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러 언론들이 막무가내 증인 출석을 막는 법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회사인 원천공제의무자만 할 수 있던 것을 채무자 본인이 직접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구직을 저해하고 취업 후 직장생활을 불편하게 했던 요인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였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동안에도 시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과 부조리를 입법과 정책을 통해 고치고 개선하는 생활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권위있는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용인시민과 많은 국민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이운룡 (새누리당, 비례대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하는 헌정대상 수상자가 되어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정도가 아니면 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의정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시각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3개나 되는 항목을 일일이 계량화 하여 세세한 활동사항까지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랍고, 그 정성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과 부정부패 위법비리에 대한 감사 역할을 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행정부와 사법부 보다 크다는 이번 헌정대상 총평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은 무겁지만, 쓴 약으로 생각하고 옷매무새를 고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당리당락과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눈앞에 벌어지는 사안의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입법 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겸손한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수상자 중 다선의원의 숫자가 적고, 본회의 재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계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입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담당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이재영(새누리당,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이재영입니다.

먼저,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항상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언론중재법, 도로교통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발의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익향상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미래전략 수립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원의 날 등 지역행사들을 통해 강동구(을)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에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뻘뻘하게 진행되는 감사일정 등 호흡을 같이 하며 제 19대 국회 3년차의 전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처럼 한결같이 국회와 정부의 기능 회복과 강화를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회의원 이진복(새누리당, 부산 동래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동래 국회의원 이진복 의원입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제19대 국회 제 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의정활동 감시기구로부터 이 상을 수상한데 대해 한편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1년 18대 국회에서 헌정대상이 시상된 이래로 4회 연속 이 상을 수상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단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움을 주신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들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주신 열렬한 목소리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전·후반기 정무위원으로서 서민들에 대한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9대 역시 전·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자 후반기 간사로서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분야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실착을 강하게 지적하여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이 수 년 간 엄청난 혈세를 지원받아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청와대에다 문제없다고 보고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을 밝혀내어 사업을 능력있고 책임있는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여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반복적인 영업사고를 야기했음에도 시정 없이 방치되거나 표면적인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 최고 의사기구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은 회의 참여라는 신념 아래 본회의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회의 참석을 어떠한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어 국회의원으로서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여 간의 임기동안 국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상을 수여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더 잘하라는 고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심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법률소비자연맹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늘 저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여러분들과 울산 남구 주민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리며, 이 영광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 더욱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수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비록 초선의원으로 19대 국회에 들어왔지만 그동안 지방의회와 구청장을 비롯해 공기업 사장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경험과 경륜을 쌓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일관된 저의 철학은 언제나 '국민에게 봉사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잊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수분지족 안빈낙도'의 정신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에 감사드립니다.

▣ 국회의원 이철우(새누리당, 경상북도 김천시)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시상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률안 발의 현황과 국정감사 성적, 회의 출석률 등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이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수상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오늘 헌정대상 수상에 대한 의미가 더 큼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수여하는 이 상은 국회의원활동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법률을 발의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안건을 의결하는,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회활동에 정진하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정보위원회 간사·안전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토를 당나라 시대 고승인 임제선사가 말한 '수처작주(隨處作主)'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든 주인된 마음으로 일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본 상의 수상과 함께 저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처작주'의 마음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계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이한성(새누리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국민을 대표하여 충실한 국회의원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문경시·예천군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이한성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처럼 커다란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시민단체 활동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밀분석·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는 지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부터 줄곧, 지역구인 문경과 예천을 비롯하여 여러 민생현장을 누비며 민의를 청취하고 국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살피면서 그 결과를 국회 입법으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왔습니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 돼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 불철주야로 분주하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의정활동 중 국회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더욱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탐방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입법을 추진하는데 크나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처럼 좋은 결과가 따라온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영예로운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시민단체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이현재(새누리당, 경기도 하남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 현장에서 답을 찾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19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전문NGO이자 국내 최대 규모로써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법률소비자연맹'에서 3년 연속 헌정대상을 주셨기에 더욱 기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과 소통하여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점이 3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일 년간 국민들이 유독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던 '세월호 참사'와 '미진한 경제성장률 회복', 지금도 종식되지 않은 '메르스 확산', 우리의 속까지 타들어가게 만든 '가뭄'까지.

이런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때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서민들의 삶'입니다. 국회 산

업통상자원위원으로서 흔들림 없이 오직 민생안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 부위원장을 맡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입법과 정책 발굴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또한 작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 잡기 위해 구성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으로서 활동했던 시간은 오로지 국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 정상화를 이룩하여 부채 없는 미래를 다음세대에 물려준다는 사명감으로 임했습니다.

철학자 R.M. 크리소스톰은 '꿀벌이 다른 곤충보다 존중받는 것은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자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9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구을 국회의원 임내현입니다.

법률 소비자연맹에서 수여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사회적·사법적 정의와 복지실현 그리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한지 3년여가 지났습니다. 19대 국회의 전반기 2년간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확보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26년간 검사로 활동했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살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 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인 의정활동을 한 것뿐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처음 국회에 들어올 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사업들도 꼼꼼히 챙겨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권자와 시민의 신뢰를 전달하는 귀한 상을 저에게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시율)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매우 기쁩니다. 무엇보다 의정감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으로부터 받은 상이기에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발의,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 국정감사 성과 등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평가하고 있는 헌정대상을 두 번씩이나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와 올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 안전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규제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때만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으로서, 세월호나 메르스처럼 기본이 잘못된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어느덧 19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민들이 계셨기에 힘 든 줄 모르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들께 이번 헌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노력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으로 수상 소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구)

더 낮게,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2013년에 이어 헌정대상을 다시 수상한 것은 매우 기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24년 전통의 법률전문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번에 평가, 발표한 '헌정대상'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입법활동, 그리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까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수상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헌정대상'시상을 위해 전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나하나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계량화하느라 많은 땀을 흘렸을 법률소비자연맹 활동가 분들과 모니터단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흘린 땀이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과 국회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마중물

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 낮게,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 헌법정신을 몸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정희수(새누리당, 경북 영천)

안녕하십니까? 정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주신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첫 발을 내딛은 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는 듯해 기쁘지만 자만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국회의장 주관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6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입증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160여건 이상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국회 본회의는 물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솔선수범과 성실히 일하는 신뢰받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량으로서 오늘의 수상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위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조원진 인사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조원진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잠실 싱크홀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부조리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들이 끊아터지면서 대한민국을 바꿔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컸습니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아 국민생활안전에 집중하며 소임을 다하고자 고군분투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과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를 맡으며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유권자분들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부지런히 일 해왔습니다. 여전히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이렇게 좋은 상으로 격려해주시니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집니다.

앞으로도 유권자인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서민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최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최원식입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운영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항상 발전적인 충고와 비판을 해주고 있으며 오늘과 같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치가 가야 할 길은 '민생'입니다. '국민 곁에 있지 않으면, 국민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곧 무능한 것이고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 중 민생과 직결된 주제는 단연 가계통신비 인하입니다. 정부에서 획기적인 처방이라고 내놓은 '단통법'을 시행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현재 통신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기국회에서는 통신 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것은 북돋고자 했던 억강부약(抑強扶弱)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매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국민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19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위원으로 선정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며, 오늘 수상의 영광을 인천 계양 주민들과 국민들 여러분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함진규 (새누리당 · 시흥갑)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인데, 이런 큰 상을 3년 연속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수여하는 상들이 다양한데,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본 상은 본회의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법안발의 실적 등을 분야별로 심사하고 객관적인 평가인단을 구성해 수상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하루에 5개 이상의 신문을 정독하고, 주요 신간서적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들었던 것이 의정활동과 본상의 수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약 1만5천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3건 정도인데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저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주력했습니다. 개발제한, 입찰참가제한 등 각종 규제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균등과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사법시험법 일부개정안' 발의입니다. 오는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개천에서도 용이난다'는 우리 사회의 신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고자 합니다.

본상을 주신 것은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격려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과 시흥시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귀한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 연맹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흥시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 전남 장흥·영암·강진)

반갑습니다. 장흥·영암·강진 국회의원 황주홍입니다.

먼저 헌정대상 수상위원으로 선정돼 진심으로 기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바탕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늘 애쓰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바로 입법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는 인권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를 위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자"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국민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정대상도 국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받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헌정대상 선정에 감사드립니다.